

잘 한다 잘 한다 칭찬하면 보다 큰 능력 발휘

송광사 광원암 감원 헌봉 스님

송광사의 광원암으로 가려면 피안교(彼岸橋)를 지나야 한다. 피안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온갖 괴로움과 속박으로 가득 한 차안(此岸)에서 벗어나 영원한 자유와 즐거움을 누리는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피안교를 지나자 초록빛 가득한 편백나무 숲이 나왔다. 비에 젖은 편백나무는 생기 가득했고, 초록빛은 허락도 없이 객의 마음을 차지해 버린다. 편백나무의 푸른빛에서 강한 치유에너지가 느껴진다.

광원암에 들어서면 햇빛 냄새가 난다. 송광사보다 250년 정도 먼저 세워졌다고 하지만, 육이오 동란으로 소실된 큰절의 불사를 위해 온 몸을 고스란히 내어준 것이다. 말하자면 연화문양의 기와며 백화(百花)가 새겨진 문짝이며, 오방색으로 단장한 대들보 등을 큰절을 복원하는데 무주상보시한 것이다. 30여년간 담뿍 속에 묻힌 채 빈터로 남아 있었는데 1992년 헌봉 스님의 원력으로 지금의 도량을 갖췄다. 그리고 광원암은 해우소를 걸러리처럼 꾸며놓았다고

생명으로 부터 태어난 것이다. 그래서 스님의 눈에는 들뜬에 핀 한 송이 꽃도 그렇게 어여쁘게 보인다고 했다.

스님은 대학을 다니다가 참선이 하고 싶어 서둘러 입대해 군복무를 마치고서는 출가했다. 이미 참선의 맛을 알고 출가를 했기에 송광사, 해인사, 백련사, 통도사, 봉암사, 수도암, 칠불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를 지냈다. 서른 해가 훨씬 넘는 세월동안 수좌로 살아 온 이력을 들어 화두참선 이야기를 듣고 싶다고 했더니 "산중에 있다가 잡혀 내려가 주지도 4년이나 했는데 수좌가 아니라요" 하면서 손사래를 친다.

헌봉 스님은 몇 해 전에 송광사 주지소임을 맡아 여법하게 잘 해냈기에 아직도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그때 송광사의 중무행정을 완벽하게 전산화시켜 제방을 놀라게 했다. 산중의 스님이지만 현대적 감각과 남다른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선지식을 찾아서 헌봉 스님

헌봉 스님은... 1974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 1975년 송광사에서 구산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 송광사, 해인사, 백련사, 통도사, 봉암사, 수도암, 칠불사 등 제방선원에서 수십 안거 성만. 조계총림 유나, 조계종 중앙총회의원과 법규위원, 정광학원 이사, 송광사 주지 역임. 지금은 송광사 광원암에 주석. 저서로는 <선에서 본 반야심경> <너는 또 다른 나> 등이 있다.

어이 그 뜻을 깨닫는 것이 화두참선이다. 이 참선 수행을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는 대신심(大信心)인데, 부처님의 말씀을 비롯해 법에 대한 믿음이나 조사스님들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둘째는 대분심(大憤心)이다. 과거의 한량 없는 선지식들은 이를 깨달았건만 나는 아직도 무명의 업장이 두터워 이렇게 아직도 모르고 있었다는 부끄러운 마음에 이를 기어올라 깨치고야 말겠다는 분발(憤發)하는 마음을 말한다. 셋째는 대의심(大疑心)인데, 화두에 대한 의심은 물론이고 경전이나 여적을 보면서 그 참뜻이 무엇인지 탐구해가는 것이다. 헌봉 스님은 <천수경>의 개경계(開經偈) 속에 대신심, 대분심, 대의심 이 세 가지 요건이 다 들어있다면 서독송을 하되 허수모이 하지 말라고 했다.

무상심심미묘법(無上甚深微妙法) / 백천만겁난조우(百千萬劫難遭偶) / 아금문견득수지(我今聞見得受持) / 願解如來真實義

"우주 처처에 불법(佛法) 아닌 것이 없듯이,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 성품을 지닌 부처이듯이, 팔만사천 대장경은 마음 깨치라고 있는 것이니 높고 낮다는 간택심을 버려야 합니다."

송나라 때 대전요룡(大顯了融)은 헌봉 스님이 번역하고 주석을 다한 책이 바로 <선에서 본 반야심경>이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헌봉 스님의 수행과 지혜의 불꽃을 한꺼번에 드러낸 것'이라 한다. 불교경전과 한학에 대한 해박함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인지 여주었더니 속가의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스님은 대어섯 살부터 속가의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한문을 배웠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이 일본식 교육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스님은 할아버지가 직접 만든 교재로 한문공부를 했다.

"바람 부는 가지에 앉은 새는 그 곱마져 위태롭구나... 어릴 때 무엇을 알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는 어린 나를 붙잡고 이런 공부를 시켰습니다."

어린 손자에게 자신의 높은 학문을 쏟아 부은 할아버지, 어찌 보면 스님의 인생관과 사상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며 어렸을 때 이미 형성된 것이 아닌가 싶다. 자신의 공부를 마음껏 펼치지 못한 할아버지는 스님이 열한 살 되던 해 돌아가셨다. 스님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중학교에 진학해 신식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광원암 한국 간화선 보금자리... '갤러리 해우소' 화제

일제교육 거부하고 한문 가르친 할아버지의 일기 책으로 펴내

인터넷에 소문이 자자하다. 광원암은 한국 간화선을 낳은 보금자리이다. 송광사 제2계 국사인 진각해심(眞覺慧諷) 스님이 광원암에 주석했으며 이곳에서 종문(宗門)의 최고 저서인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30권을 펴냈다. 선문염송집에는 선가(禪家)의 옛 화두 1225칙과 선사들의 긴요한 말씀이 담겨있다. 광원암의 지기(地氣)가 그러한지 헌봉 스님 또한 <선에서 본 반야심경> 등을 비롯해 선에 관한 책을 펴냈다. 스님이 광원암을 복원했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인연임에 틀림없다.

헌봉 스님은 차를 한 잔 앞에 두고 수직으로 퍼부어대는 비를 감상하고 있었다. 어찌 비뻔이라, 온 몸으로 비를 맞고 있는 하얀 연꽃이며, 자줏빛 접시꽃이며, 노란빛 달맞이꽃도 눈에 담아내고 있겠다.

"꽃들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더 잘 자란다고 하잖아요. 좀 못 생긴 착잔이라도 자꾸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쓰다듬어 주고 칭찬을 하면 그릇도 환희심을 내어 윤이 나고 더 예뻐져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맘에 좀 들지 않더라도 잘 한다면서 칭찬해주고 기를 세워주면 자신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저 꽃들도 내가 보여주어서 더욱 좋을 겁니다."

모든 참 생명은 연기에 의해 펼쳐진 것이며, 모든 존재들은 상호의존의 관계 속에 있다. 별레 하나, 풀잎 하나, 한 송이 꽃도 우주의 근본 바탕인 절대적 참

스님은 출가한 후 3년 동안 원두소임을 맡아 농사일에 온 정성을 기울였다. 농사만 지은 것이 아니라 밭두렁에서도 끊임없이 화두를 쟁겼다. 초발심 시절부터 노동과 수행을 몸여 익혀 온 터라 지금도 시간만 나면 밭 갈고 풀 뽑는 일에 매달린다. 광원암을 둘러보면 토마토와 고추를 비롯해 여름 내내 공양거리가 되는 푸성귀들이 자라고 있다. 쪽 고르며 줄맞춰 자라고 있는 고춧대는 얼마나 늙름한지 모른다.

중국의 선종사찰들은 대부분 들판이나 산중에 있었기 때문에 탁발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일일이 장바다 나르는 것도 힘들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 백장 선사의 <백장정규>도 한 문 했을 터다. 중국 선사들의 선문답을 보면 노동하는 가운데서 나온 것들이 많다. 예를 들어서 '찾았을 따면서 위산 영우 선사와 양산 스님과 나는 선문답을 보면 다음과 같다.

위산 선사가 찾았을 따다가 양산 스님을 보고 말했다. "스님은 본체만 얻었을 뿐 작용은 얻지 못했구나." 이어 위산이 말했다. "그대에게 방망이 30방을 쳐야겠구나."

헌봉 스님은 중국 선종에 대해서 좀 더 언급했다. "중국에서는 낮에는 농사 짓고 밤에는 참선하고 주경야선(晝耕夜禪)을 했어요. 그러다 비오는 날이면 일을 못하고 방안에서 질신을 삼는다가나, 바느

질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법기랑도 하고 했겠지요. 우리나라의 구산선문(九山禪門)인 실상사, 보림사, 태안사 등도 그러했어. 앉기 위해서 앉는 것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그만큼 힘을 받기 위해서 앉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옛날 조사스님들은 상황에 따라 친절하게 말해 주거나 침묵하거나 몽둥이로 때리거나 아니면 단정을 피우는 등 온갖 수단과 방법으로 학인을 단련시켰다. 조사스님들이 왜 그런 수단방법을 썼는지를 모르면 '어째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고 참구해

기

2010 불교달력출시

국6절 · 12절 · 두달 · 차걸이 · 미니 · 다이어리 · 탁상 · 한지

창립 35주년 기념으로 달력가격 대폭인하 !!!

불서보급 35년 전통과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여 불교달력과 불교용품 직접 생산, 판매합니다. [공장직영]

불교용품/불교서적/불교달력 침향/주목/염주/염주머니 4·8용품/등표/전선·전구 공단등/바림등/만월등/청사초롱 봉축카드/생일카드/프린트용지 예수재용품/영가웃/탑다라니 사경책/사경지/한지108사경 양초/향/고급다포/타올다포

※ 달력카드록 · 용품카드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세요.

동진기획 · 붓다쇼핑 검색창에 [붓다쇼핑]을 쳐주세요! www.buddhashopping.com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송정리 364-2번지
TEL (051)515-8888 FAX (051)508-0101
H.P 011-554-2988, 011-879-0889
E-mail dongjin8888@naver.com

※ 대량구입시 가격은 인터넷 또는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뇨의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탁월한 당뇨에 좋은 웰빙 당조고추 개발

정무원 초코이공봉스님

제일종묘사와 농촌진흥연구소 및 강원대와 공동으로 3년 연구 끝에 혈당치의 상승을 억제하는 AGI(A-Glucoisidase Inhibitor)라는 기능성 물질을 다량 함유한 신 기능성 고추를 개발하였습니다.

AGI는 십이지장 등에서 탄수화물의 소화 흡수율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어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이용되고 있는데 당조고추를 당뇨에 걸린 쥐에 투여한 결과 식후 30분 후 혈당치가 120-150mg/dl로 평소 180mg/dl에 비해 상당한 혈당강화 효과를 거두었다.

정무원 주지 고봉 스님의 당조고추

"현대 불교는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농사를 위한 중 새롭게 개발된 기능성 고추인 당조고추를 재배하게 되었다." 평소 농사를 수행처럼 생각하던 스님은 대중들이 새로운 예찬을 만들 수 있도록 당조고추에 천연항생물질(프로폴리스)을 살포하여 기능을 강화시키고 고추작물에게 나무아미타불 염불과 명상음악을 듣게하여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서 황금의 빛이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일체 친환경농법을 사용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7월 초 첫 출하를 앞두고 농협중앙회 식품검사소에서 농약잔류검사를 의뢰하여 280성분수의 농약을 검사한 결과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한 판정을 받았다.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

- 크기 및 색상: 고추명은 당뇨에 좋은 고추라 하여 '당조고추'라 하고 이 당조고추는 다른 고추에 비해 20-50% 가량 크고 색상은 파피색이나 연노랑에서 옐로우색으로 크며 익을 때 일반고추와 같이 빨강색으로 익는다.
- 맛: 당조고추의 맛은 일반 고추 맛과 똑 같으며 안 매운 것과 약간 매운 맛으로 구분됩니다.
- 혈당저하 체험: 당뇨환자들이 식사 전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식사를 하면서 당조고추 3-4개를 먹고 40여분 경과 후 혈당을 측정하여 보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져 있는 것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체험하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 성인병 예방에 효과: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장기 섭취를 하면 각종 성인병을 예방할 수 있고 된장이나 찜장에 찍어 먹어도 되며 파프리카와 같이 생식용이나 샐러드로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 품질: 우리나라 고추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기능성고추입니다. A-Glucoisidase Inhibitor 기능성 성분이 다량함유되어 혈당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계최초 기능성 당조고추입니다. 농림부 산하 농업기술관리센터의 농업기술개발사업지원으로 육성된 품종입니다. 강원대학교 이해의 교수와 원예연구소 조광철 박사가 제일종묘농산과 공동으로 연구 육성한 품종입니다.

7월 부터 출하 된 '당조고추'가 필요하신 분자님들 전화주시면 '당조고추'에 대해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정무원: 경북 군위군 소모면 복성리 22 ☎ 054-383-0407